

제224회 임시회
2004. 3. 10(수)

3.5폭설피해에 따른 특별보상대책마련촉구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3.5 폭설피해에 따른 특별보상대책마련촉구건의안

의안 번호	181
----------	-----

제안년월일 : 2004. 3. 10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지난 3. 5일에 도내 전 지역을 기습적으로 강타한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설로 인하여 우리 충북지역은 2년간 연속된 태풍과 조류독감 피해에 이어 한·칠레 FTA 타결에 따라 농업기반 붕괴위기까지 초래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축사가 붕괴되고 원예농가의 비닐하우스 파괴와 수십만 마리의 가축피해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어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와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하여 피해민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제안 이유

폭설피해 주민들에 대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과 기업인들이 각종 재해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재해관련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주민들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자료 : '없음'

3.5 폭설피해에 따른 특별보상대책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재정부장관,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농림부장관,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님께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국정에 다망하심에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 5일에는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설이 우리 도내 전 지역을 기습적으로 강타하여 1,296개 동의 축사가 붕괴되고 335ha의 비닐하우스 파파와 수십만 마리의 가축 피해, 그리고 170여 개의 기업체 피해 등 3. 9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만도 1,653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우리 충북지역은 2년간 연속된 태풍과 조류독감 피해에 이어 한·칠레 FTA 타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우리 지역 농민과 기업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으며 또다시 망가진 생활기반의 참담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며 재기의 용기를 잃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의 폭설로 피해를 당해 슬퍼할 힘조차 없는 피해민들에 대하여 조속한 피해복구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주어 어느 정도의 복구는 이루어질 것이나 현 실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미약한 제도하에서의 재해복구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국제적 농업 개방화 추세에 따라 농민들의 영농 의지가 위축되어 있고 기상재해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재해관련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비 지원 보조비율이 35%밖에 되지 않는데 가뜰이나 요즈음 철근, 비닐 등 시설용 원자재 확보가 어려운 형편으로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인데 보조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피해복구비 산정을 현실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복구비 예산을 선지원 한 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피해 농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피해면적 2ha 미만과 600평 미만의 축사에 대하여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면적 2ha 이상과 600평 이상의 축사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확대 적용 해줄 것과 무허가 및 사유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사회봉사단체와 민간기업을 포함한 군·경·관 모두와 힘을 합쳐 응급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최소한의 해결방법은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서는 도저히 재빨이 불가능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폭설피해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주민들에게 정부의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충북을 위해 언제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0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